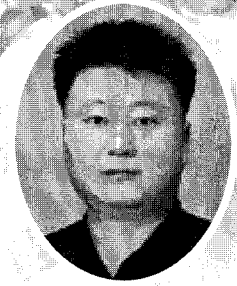


양돈 사료산업 전망



박 병 배 부장

㈜도드람 B&F 마케팅PM

2009년도 이제 1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걱정스런 마음으로 맞이했던 2009년! 다행히도 돈가의 고공행진이 지난 2년 동안 힘들었던 농장 경영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PCVAD의 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2사분기 이후 모든 도태두수가 늘어났던 부분과 맞물리면서 작년보다 평균 MSY가 전국 평균 0.5두~1.0두 증가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4월말 신종플루의 발생과 한 EU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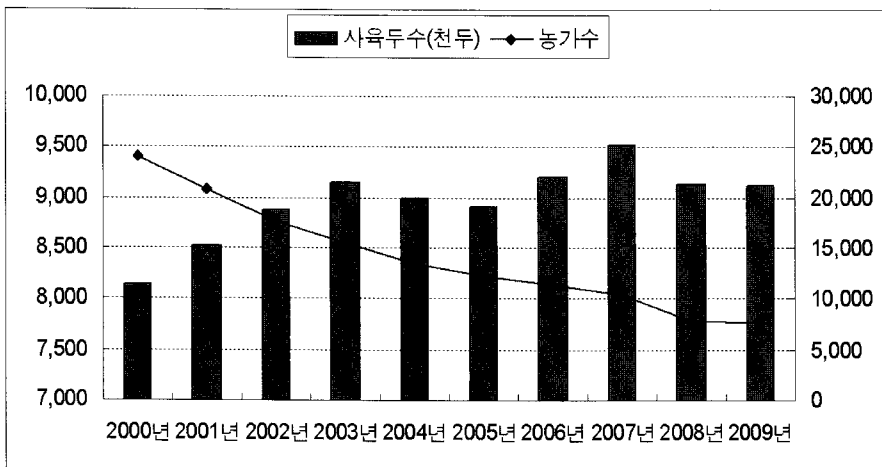
의 체결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신종플루 국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외식 등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돈가의 하락과 육가공 업체의 경영난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양돈산업의 존폐와 미래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에 속해 있는 모든 단체들이 한 몸같이 합심해서 위생적이고 품질 높은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산업의 역량이 총 동원

<도표 1> 최근 10년간 사육두수 및 사육 농가수의 변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양돈 통계를 바탕으로 2010년 시장을 전망해 보고, 우리산업이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사육두수 및 사육농가수 전망

<도표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10년간 사육두수는 돈가에 따라 다소간 변동을 보였지만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2008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25,000호에 육박했던 사육농가수는 매년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10년이 지난 2009년에는 7,600~7,700호 수준으로 약 70%가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 돈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사육두수와 사육농가수는 2008년도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농가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브랜드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계열화에 참여하는 농가수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2010년도 사육두수 및 사육농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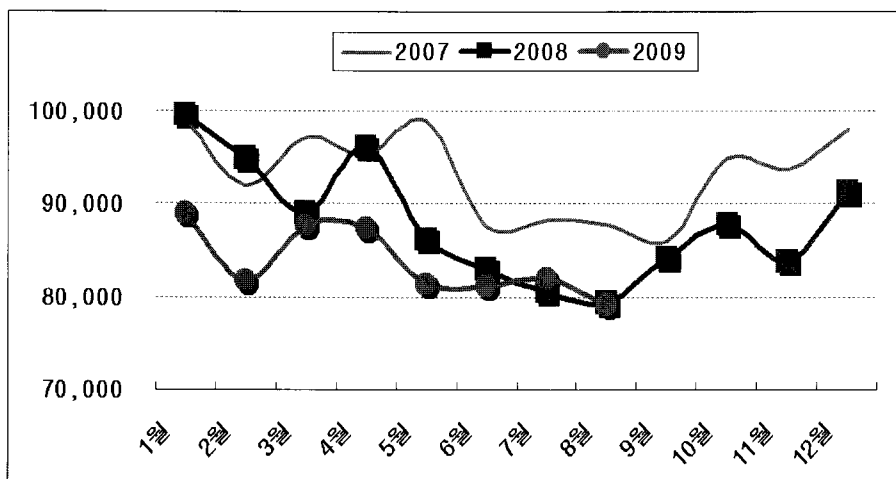
2010년 시장도 금년도와 같은 사육두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2009년 모든 사료 생산량 참고).

사육 농가수는 수도권 지역등을 중심으로 일부 폐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약 200~300 농가 정도가 줄어들어 2010년 말에는 7,300~7,400호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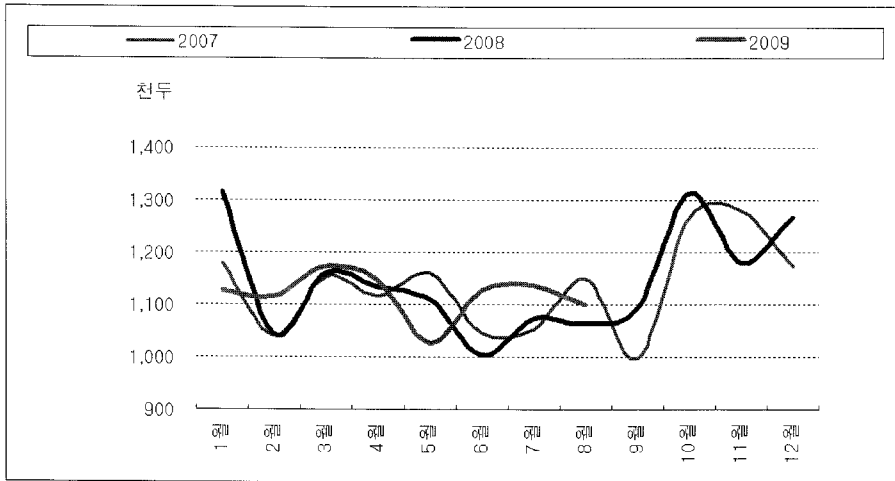
<도표 2>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2사분기부터 모든 사료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국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으로 경영난에 처한 농장들이 모돈을 강도태하면서 두수를 줄인 것으로 분석되며, 2009년도에는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돈사료 생산량은 2008년 동기누적대비

<도표 2> 최근 3년간 모돈사료 생산량의 변화



〈도표 3〉 최근 3년간 월별 도축두수의 변화



(단위: 천두)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평균
2007	1,179	1,039	1,153	1,118	1,158	1,047	1,054	1,149	996	1,265	1,280	1,175	13,612	1,134
2008	1,318	1,045	1,159	1,132	1,111	1,002	1,072	1,064	1,094	1,314	1,181	1,267	13,757	1,146
2009	1,128	1,117	1,173	1,145	1,025	1,127	1,138	1,102					8,954	1,119

5.6%감소한 반면 <도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년 출하두수는 전년동기누적대비 100%로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하절기 교배두수의 증가와 PCVAD 발생을 감소가 출하두수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배합사료 시장 전망

1)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량

2009년 양돈사료 생산량은 2008년 동기 누적대비 비하여 약 2.7%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분석해 보면 2009년 연간 양돈사료생산량은 전년대 약 3.0~3.5% 정도 감소된 결과로 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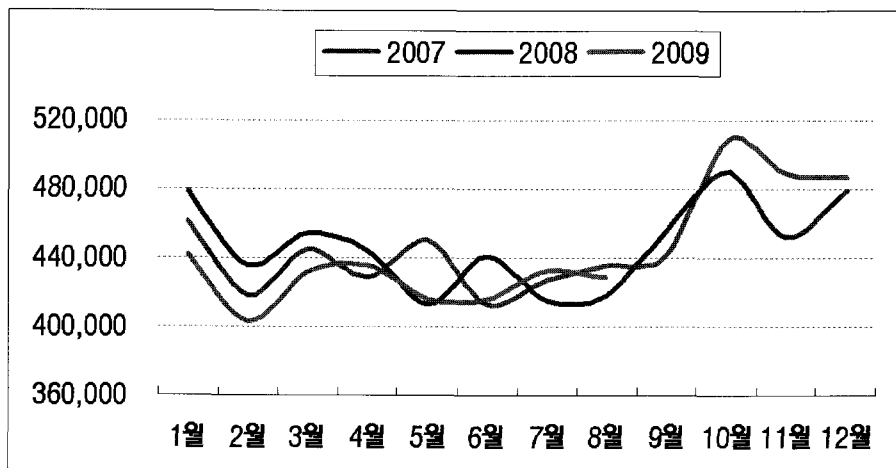
2) 2010년 배합사료 시장전망

2010년에는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연간 5,200,000톤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정 요인]

- 1) 2009년 모돈두수
- 2) 2009년 한국양돈 생산성 (MSY 15.0~15.2두)

〈도표 4〉 최근 3년간 양돈사료 생산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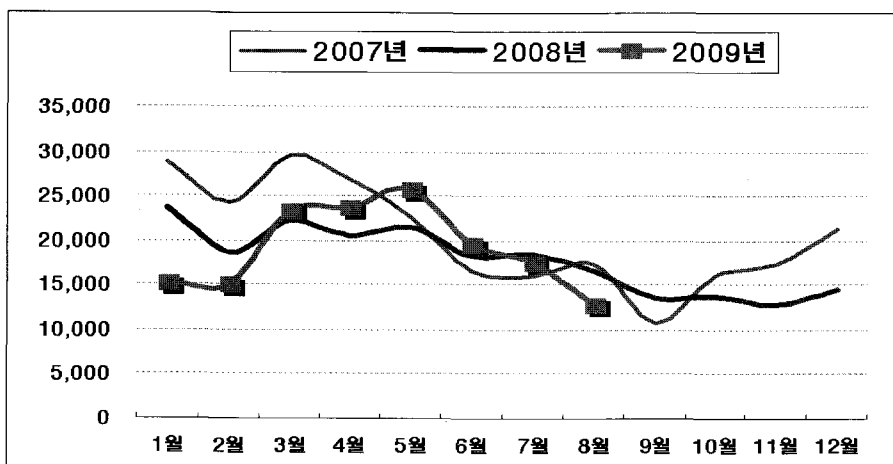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461,694	418,396	445,448	429,097	450,230	412,927	427,887	436,301	442,489	509,043	488,733	487,077
2008	479,043	436,384	454,260	444,011	412,948	441,203	415,059	418,445	456,090	490,042	451,962	479,065
2009	442,212	403,006	432,022	435,413	416,194	415,962	432,623	428,273				

3. 돈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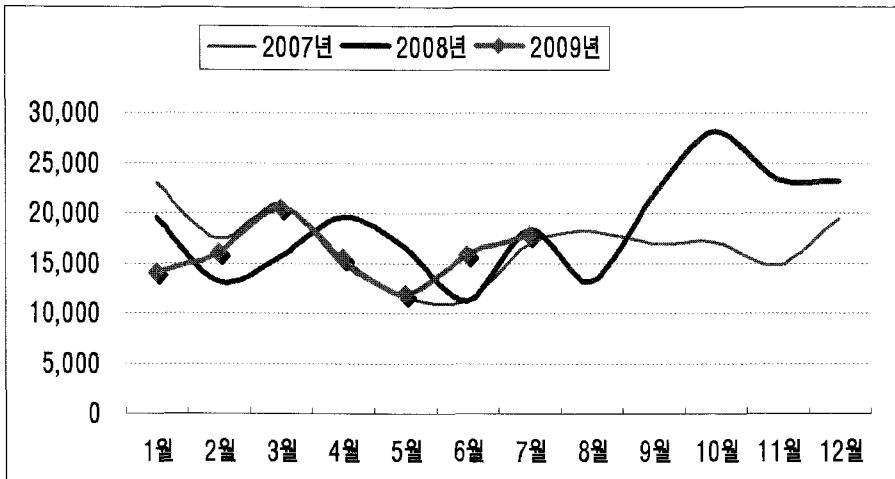
돈가는 돌발 악재가 없는 한 지금과 같은

고돈가 추세는 내년도에도 지속되리라 판단됩니다. 국산 신선 고품질 돈육에 대한 소비 선호도가 매우 높아져 있으며, 미산 쇠고기

1) 최근 3년간 돈육 수입량 (통관기준)



2) 최근 3년간 소고기 수입량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입육 전반에 걸친 기피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의 상승으로 대변되는 경제지표의 상승에 따라 소비심리도 점차 살아나리라 전망됩니다.

또한 서울 시세로 대변되던 지육가격이 2010년 대부분 전국시세로의 전환이 예상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부분도 돈가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SY 22두를 최소목표로 하고,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실행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2,000두 이상의 농장에서 단시간 내에 MSY 22두를 달성하는 사례는 이제는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노하우는 바로 실행에 있음을 함께 인지하고, 다가올 2010년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

4. 미래에 대한 준비

돌이켜 보면 우리 양돈산업은 매년 악재를 겪어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EU FTA 체결과 신종플루라는 악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돈산업은 난관을 잘 헤쳐 나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악재를 이겨낼 강력한 힘의 원천은 결국 생산성 향상입니다.